이베로아메리카 제7권 1호(2005)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소외

윤 택 동* · Carlos Nelson dos Reis**

<Abstracto>

O presente texto contempla uma pontuação e análise do crescimento econômico e da exclusão social nas principais economias da América Latina. Para tanto, desenvolve uma breve pontuação histórica da Região, para na seqüência destacar o comportamento dos agregados que apontam para o crescimento econômico e, posteriormente analisa um conjunto de indicadores sociais que apontam para o recrudecimento da questão social na Região. Conclui destacando que a América Latina teve um vigoroso crescimento econômico no século 20, mas, no entanto, não logrou diminuir suas históricas desiqualdades sociais. Assim, a característica básica da região é a coexistência de inserida no contexto de consumo capitalista e outra excluída, em algumas situações, até mesmo das necessidades básicas para a sobrevivência. Este problema social, entao, pode afetar diretamente no crescimento economico futuro da Região.

Key Words: América Latina / Evolução Econômica da América Latina / Exclusão Social / Desigualdade / Crescimento Econômico

주제어: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 / 사회적 소외 / 불평등 / 경제성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E-mail : taekdy@ hanmail.net
** 브라질 PUCRS대학교 경제학과, E-mail : Cnelson@pucrs.br

Ⅰ. 서 론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근본적으로 역사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유럽, 특히 이베리아반도 국가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5세기 초반부터 해외로 확장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5세기말 포르투갈은 인도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아메리카대륙이 발견되었다. 당시 교황의 중재로 맺어진 또르데질랴스(Tordesilhas)조약에 의해 아메리카대륙에서 포르투갈은 브라질지역을 그리고 스페인은 나머지 모든 지역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은 이들 두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발된다. 그러는 가운데 유럽의 여타 국가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북미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나누어 차지하게 되고, 스페인이 지배하게 되는 지역은 멕시코 이남의 지역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미지역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리고 중남미지역,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지역[1]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누어 차지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은 크게 중미와 남미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단 영토적으로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지역은 스페인이 독차지하였고, 남미지역은 원래 또르데질랴스 조약에 의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구분이 이루어졌으나, 여러 이유-1580~1640년 사이 스페인의 포르투갈 합병, 17세기 말부터 브라질에서 금광 발견에 의한 내륙오지로 인구이동, 이 인구이동의 결과로 인한 영

1) 라틴아메리카란 북미대륙에서 미국과 멕시코 경계지역에 있는 리오 그란데Rio Grande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남지역을 지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한국에서는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라는 용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토경계선 침범,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와 포르투갈 식민지간의 영토전쟁-로 인해 결국 브라질 지역은 1494년 원래 조약에 의해 확정된 지역보다 2배나 큰 지역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결국 남미대륙의 거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1500년 이전 인디언 역사를 논의에서 제외할 경우, 라틴아메리카지역은 5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더욱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지역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도 문화적, 정치적으로 유사성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두 지역의 식민지인 라틴아메리카지역은 근본적으로 많은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과는 달리 차이점들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너무나 광대하여, 결과적으로 현재는 약 30여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있다. 남미지역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반을 차지하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12개 국가가 있다. 이렇게 광대한 지역이다 보니, 각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차이는 각 지역의 활동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고,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각 지역의 발전에 차이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식민개발초기 지리적 특성상 멕시코와 페루지역은 광산물을 생산, 수출하는 지역경제적 특성을 갖게 되었고, 브라질지역은 열대농산물을 경작, 생산, 수출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 같은 특성은 수출 의존적이라는 이 지역의 또 다른 유사성을 창출하기도 하였지만, 경제활동에서 커다란 기본적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식민지개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50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이 지역개발은 1800년대 초반에 이 지역이 식민본국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정치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1차 산물 수출경제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수출에 지역경제성장을 의존하는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었다.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1900년대 초반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산업경제로 전환하면서 변화가 발생되었다.

결국 19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두 기간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경제체제와는 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 근본구조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식민초기에 형성되었던 다수의 빈곤대중계층과 소수의 부유지배계층이라는 양분적인 구조는, 최근으로 오면서 다소 완화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지라도, 오늘날까지도 크게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부의 분배의 심각한 불균형, 치안 불안, 낮은 교육수준, 사회적 불안정 등, 이들 문제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더군다나, 1900년대 초반이후 진행된 산업화는 생산구조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을 유발시켰고, 거기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발생되고 있는 산업생산구조의 재편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심각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생산구조개편은 구조적 실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생활수준의 심각한 악화는 이전의 빈곤개념에 새로운 요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산업화 이후의 불평등과 빈곤문제, 특히 1980년대 들어 발생된 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생

겨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소외와 빈곤발생 형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한다. 이 주제를 다루고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이 지역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왜 이렇게 심각한가? 다시 말해, 불평등의 원인과 그 변천에 대해 연구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최근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문제는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이전의 문제와는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는 본 논문의 의도를 충분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것이지만, 시대적으로 500년을 다루어야 하는 광범위한 내용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구성상, 내용상의 단절이 없이 제시되고 분석하도록 하겠지만, 다루는 형식에 있어서 집약적이고 중요사실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Ⅱ. 경제성장모델과 사회적 소외: 개념 정리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모델로서는 케인즈이론에 따른 해로드-도마(Harrod-Domar)모델과 신고전이론에 따른 솔로우(Solow) 모델이 주로 논의된다.[2] 1980년대 후반이후 내생적 성장이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성장과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가 산업화를 하던 시기에 세계적으로 주로 활용되던 성장모형으로는 위의 해로드-도마(harrod-Domar)

2) 두 모델 모두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나오는 신고전적 이론바탕과 케인즈적 이론바탕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모델과 솔로우(solow)모델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이론적 성장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2차 대전 이후부터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등장하였던 저개발국의 경제개발계획모형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다. 로젠스테인-로담(Rosenstein-Rodam)의 경제 전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빅-푸쉬(Big-push)모형에서 시작하여, 로스토우(Rostow)의 경제발전 단계론, 넉시(Nurkse)의 균형성장론, 허쉬만(Hirschman)의 불균형 성장론, 무역을 이용한 외향적 산업화전략, 수입대체산업화전략 등이 1960년까지 등장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개발 또는 발전의 개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으로 발전의 개념전환이 발생하였다.[3)]

이 같은 경제발전모형의 전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와 관계가 깊은 경제개발모델은 수입대체산업화모델이며, 이 모델에 깔려 있는 정통적 자유무역이론에 대한 비판적 사상은 한때 종속이론으로까지 발전하여 전세계 경제학계에서 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이 수입대체산업화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의 중심에는 프레비쉬(Prebisch) 또는 프레비쉬-싱거(Prebisch-Singer) 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 가설은, 서구 발전국들의 발전과정과는 달리, 서구의 식민 지역이었던 라틴아메리카는 서구의 필요에 의해 1차산품을 특화 하였으나, 1차산품에 대한 비탄력적인 세계수요, 그리고 경쟁적인 전세계 1차산품 시장구조, 또 제조품의 독점가격이라는 요인들이 결합되어, 생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이들

3) 따라서 양적 개념의 경제성장과 양과 질의 개념을 포괄하는 경제발전이라는 두 용어의 차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이론적 발전은 더욱 활발히 진행된 반면, 성장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경제성장모형은 내생적 성장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라틴아메리카지역 내에 남지 않고, 서구 발전국으로 이전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는 달리 이익 분배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그들이 이제까지 독점가격을 지불해가면서 수입해왔던 제조품들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여 이제까지 유출되던 이익을 지역 내에 유보 시키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두하였고, 이것이 곧 수입대체 산업화전략은 근간이었다. 1930년대 이후 지역 내 각 국가별로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수입대체산업화는 추진되며, 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는 이전의 1차산품 생산, 수출지역에서 탈피하여 산업화에 돌입하게 되며, 이것이 이 지역 경제성장의 주된 동적요인이 된다(Reis 1997).

'사회적 소외' 또는 '사회로부터 배제'라는 용어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다. 각 개인마다,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다르게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 상대성이 강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들 사회적 소외에 포함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빈곤, 노숙자, 극빈자, 거지, 저영양계층, 인종차별(흑인, 인디언), 부양가족 없는 노약자, 장애인, 문맹자,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보호문제, 분배의 문제, 여기서 발생되는 불평등문제, 성별차이에 의한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도 사회적 소외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사회적 소외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외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소외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소외란 소외된 자들이 자

신이 소외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소외는 역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육성되어 온 것이며,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극단적인 소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정치적 소외가 그 사회에서 특권을 만들어내고, 그와 동시에 사회에서 배제된 한 개인은 그가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평등의 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Demo 1996, 3).

이같은 사회적 소외는 어느 사회에서나, 또 그 사회의 어떤 시점을 보더라도 존재하였던, 즉 사회적으로 항상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소외가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2차 대전 이전에는 불평등, 빈곤이라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거의 논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차 대전 이후 저발전국들의 처참한 생활상이 전세계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여타 다른 이유들과 결합되어 저발전국들의 경제개발이 필요함을 알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추진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이들 국가들이 경제개발추진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의 불평등,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1970년대 초반에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경제성장을 넘어선 빈곤, 불평등, 고용, 보건, 주거,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빈곤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에 발생한 생산부문의 재편과 관련이 있었다. 즉,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부

문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부문은 더욱 자본집약적인 부문으로 바뀌게 되었고, 당연히 노동절약적인 추세로 말미암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실업자들은 이제 새로이 빈곤계층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들은 빈곤의 새로운 한 유형,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업을 통해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쫓겨난 노동력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소외를 당하게 되는데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서, 주거환경에서, 인권에서, 법 등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조적 실업을 통한 배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까지 소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외 내지 배제의 그 수준은 각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결국 기술혁명은 고용을 더욱 가변적이고,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많은 소외계층을 새로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남아도는 계층이 소외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에 흡수되었던 계층이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퇴출에는 국가경제불안 내지 위기가 한 요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최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이 그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예전에는 노동시장에서 실업문제가 주로 '탐색의 형태나 조건'에 의해 논의 되었으나, 이제는 젊은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어떻게 밀어 넣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이 고용의 가변성은 노동의 조건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고용인과 고용주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구조조정이 가져오는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생산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성 증대의

(+) 효과와 사회적 비용이라는 (-) 효과에 대한 전체적 검토를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요구되면서, 정부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적 소외를 최근 생산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새로운 사회적 소외와 그 이전의 전통적 사회적 소외로 구분하여 본다면, 개도국과 발전국들 사이에서 이 사회적 소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발전국들은 전통적인 사회소외 측면에서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여, 최근의 새로운 사회적 소외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새로운 사회적 소외 문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적 소외 또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으로 해서 대응 능력은 적은 반면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훨씬 많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더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 소외는 일면적이며, 단순한 문제가 아닌, 한 사회 내에서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연계성의 파괴를 발생시키는 다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Wanderley 1999, 80).

Ⅲ.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변천과정

1. 1차산물 수출경제시대: 150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1500년 이후 약 400여년간 라틴아메리카는 1차산물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여왔다. 이러한 특성은 식민초기 이 지역이 개발될 때, 식민 본국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400년대 포르투갈이 인도항로를 개척하려 나서게 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것이었다. 즉,

당시 향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이었고, 인도로 가는 육로가 폐쇄됨으로 인해, 경제적 목적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바다로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확장의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따라서 1500년대에 들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인도항로 개척원인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식민지에서 부를 창출하여 본국으로 가져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은 육성되지 않았고, 본국경제를 보완하거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 허용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럽에 위치한 식민본국이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독점하고, 그리고 식민지에서는 제조업 활동을 억제하면서 1차산품 생산경제체제를 형성하며, 유통 또한 본국이 독점하면서 그들의 제품을 식민지에 팔아 막대한 독점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라틴아메리카가 1900년대 초반까지 1차산품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시대적으로 지역별로 그 변천과정은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식민지 개발 초기, 스페인 식민지와 포르투갈 식민지의 개발에서는 뚜렷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스페인 식민지역은 개발초기부터 막대한 귀금속이 쏟아져 나온 반면, 포르투갈 식민지역에서는 귀금속이 나오지 않았다. 이같은 차이점이 양 지역에서 개발형태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고, 향후 독립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스페인이 차지한 지역은 너무나 광대하였다. 따라서 스페인은 모든 지역을 개발할 수 없었고, 현재의 멕시코지역과 페루지역을 중심으로 두 지점을 잇는 선을 주축

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다. 이들 두 지역에 이미 존재하던 인디언 문명을 정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스페인은 막대한 귀금속을 획득할 수 있었고, 또 이 지역에 매장되었던 귀금속을 채굴하여 본국으로 이송하면서 막대한 부를 얻었다. 따라서 이같이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즉 경제성이 높은 생산활동을 제쳐두고 다른 생산활동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 스페인 식민지역에서는 귀금속생산이 고갈되었던 17세기 중반까지 귀금속생산에 집중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포르투갈 식민지역에서는 초기에 귀금속이 생산되지 않았다. 그리고 멕시코나 페루처럼, 체계를 갖춘 인디언 조직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조그만 부족단위로 분산되어 있었다. 결국 기존 인디언조직이 개발해놓은 귀금속도 없었고, 이들 인디언들이 귀금속에 대한 지식도 없었으므로 인해 식민개발과정에서 귀금속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광대한 식민지역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포르투갈은 식민지개발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인근 스페인 식민지역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귀금속을 고려할 때, 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식민지개발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사탕수수재배에 성공하여 식민지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막대한 이익까지도 본국으로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포르투갈 식민지역에서는 열대작물인 사탕수수를 재배, 생산하여 유럽에 판매하게 되는 경제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스페인 식민지와 포르투갈 식민지는 초기 개발단계에서 생산활동은 1차산품이라는 유사점은 갖지만, 생산 방식에서, 그리고 생산물에서 완전히 다른 체제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약 150여년간의 초기 개발과정을 지나게 되면서, 스페인 식민지역은 광업의 쇠퇴로 경제활동이 침체되어갔고, 이와 반대로 포르투갈 식민지역은 17세기 중반이후 사탕수수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으나, 17세기말부터 금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차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식민지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역에 설치된 부왕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9세기 초반에는 여러 나라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런 스페인과는 반대로, 포르투갈은 금생산으로 인해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분리세력은 그 힘이 약화되어 19세기 초반에 단일국가, 브라질로 독립하게 된다.

19세기 초반에는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식민지역이 독립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큰 변화는 없었는데, 브라질에서 금광경제의 쇠퇴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커피가 주도적인 산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차산품 위주의 수출경제체제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변화는 1930년대에 가서야 시작되는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마침내 산업경제체제로 전환이 발생된다.

2. 산업경제 시대: 193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산업화가 발생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였다고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각 국가마다 산업화의 발생시

점, 구성내용, 변천과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각국의 산업화 발생시점에 대한 논쟁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산업화에로 진입은 일반적으로 1900년대 들어서, 특히 1930년대 이후에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4] 셀소 푸르타도(Celso Furtado) 역시, 라틴아메리카지역 산업화에 있어서 1929년 대공황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이유는 경제활동 중심축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30년 이전에는 경제활동이 1차산품 수출에 의존하여왔던 반면, 대공황이후에는 1차산품 수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산업부문이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고 지적한다(Furtado 1969, 139). 여기서의 초점은 산업화가 언제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의 주축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해 성장의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에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성장 축이 1차산품 수출에서 산업활동으로 변화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193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수입대체산업화이다. 이것 또한 한국경제의 수출지향 산업화와는 대조되는 부분으로서, 이 지역의 환경에 의한 선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수입대체산업화는, 1차산품을 수출하고 제조품(공산품)을 수입하여왔던 한 국가가 1차산품의 장기적 교역조건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이제까지 수입하여 왔던 제조품을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려는 것이 주된 의

4)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1930년 이전에 이미 GDP에서 산업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각기 22.8%, 14.2%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 당시 11.7%였다.

도이다. 사실 1929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산업화는 이념적이나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차산품 수출의 부진은 국가의 소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대외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기존에 수입하여왔던 제조품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품질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국내제조품의 판매 확대를 가져오면서 국내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또다시 생산의 확대에 따른 고용의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시장의 확대와 경쟁력증대라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되는 문제는 이때의 산업화가 주로 비내구성 소비재산업에 치우쳐져 있었으므로 해서 투입재, 자본재 등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하부구조설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화에 개입하는 수입대체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된다.[5] 2차 대전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그런 가운데 다소나마 산업화를 이룩하게 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결국 수입대체산업화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도 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 아시아의 대외지향적산업화와 비교하여서는 보잘것없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내부적 문제점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19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심각한 침체 내지 위기 국면

5) 여기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당시의 세계경제의 흐름이다. 2차대전 이후 등장된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이에 따른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 필요성, 또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한 문제 등이 결합되어 후진국들의 산업화가 자극된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사한 경제정책이 취해지게 된다.

을 지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아래의 <표1>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시대별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1>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시대별 경제성장률

	1970-75	1975-80	1980-85	1985-89	1990-94
Argentina	3.56	2.96	-2.00	-0.24	8.51
Brasil	9.60	7.13	1.27	1.84	2.36
Chile	-1.58	6.58	0.43	6.30	6.93
Colombia	5.51	5.21	2.22	4.48	4.21
Mexico	6.34	6.44	1.92	1.66	3.49
Venezuela	4.81	3.27	-1.31	2.56	2.86

자료: Hofman 2000.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1970년대에는 높은 성장을 보여주는 반면, 1980년대에는 아주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화를 달성하였고, 또 유사한 산업화과정을 거친 브라질과 멕시코를 보면, 1970년대에 아주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80년대에는 2%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결국 일인당 국민소득은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경제활동의 침체는 수입대체산업화의 한계와 국내경제정책과 국내제도의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산업화의 실패와 경제침체를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산업전략의 문제점 외에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이 복합되어 경제정책 내지 제도에 나타난 비효율적인 측면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자본이 충분하지 않

은 저개발국이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한다고 할 때,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외채 문제이다. 국내시장이 충분히 크고, 생산성이 높아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여 외채를 갚아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수의 몇 개 예외적인 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채를 갚고 자본을 축적한 경우는 거의 보기가 힘들다. 저임금이라는 생산비용측면에서의 장점도 있지만, 기술 및 교육수준, 정책의 효율성 및 기업가들의 능력 측면에서 문제점을 극복하기가 쉽지않을 뿐만 아니라, 외채를 갚기 위해서는 결국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고, 따라서 1차산품의 수출에 또다시 의존하든가 아니면, 국내제조품의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 들어야 한다. 따라서 바로 앞에서 제시한 기술, 정책효율성, 기업가 문제와 더불어 국내시장 보호정책을 채택함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에 외채를 갚아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채택된 대외지향 도는 수출지향 산업화정책은 외채처리와 관련하여 대응능력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제경제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결국 라틴아메리카에서 1980년대 경제성장의 위기는 외채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Ⅳ. 라틴아메리카 사회적 소외의 근본원인과 최근 새로운 사회적 소외현상

1. 라틴아메리카 사회적 소외현상과 근본원인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는 경제적 목적에서 시작된 식민개발로 인해, 이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 내지 경제체제 자체가 사회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내부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6세기에 라틴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정복되었다. 이전의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다시 말해 이미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 어떤 새로운 요인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이 쓰여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스페인 식민지역의 초기개발과정을 살펴보면, 스페인 왕은 식민지역내의 일정지역에 대해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에게 전권을 부여하였다. 실질적으로 일정한 세금만을 왕에게 바치면 되었던 이 '엔꼬미엔다(Encomienda)' 제도는 정복된 지역의 모든 인디언을 책임자인 엔꼬멘데로(Encomendero)의 수중에 몰아 넣었다. 이미 앞 절에서 설명되었듯이, 초기의 주도적 경제활동은 광업이었다. 광산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은 이들 인디언들 중에서 징발하여 공급되었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토착민 공동체에서 살았지만 거의 반(semi) 노예상태에 처해 있었고, 이들이 광업생산에 참여하여 발생된 이익 중에서 이들에게는 돌아오는 몫은 생존에 필요한 정도일 뿐 나머지는 모두 엔꼬멘데로에게 돌아갔다. 간단하게 설명된 이 제도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쉽게 이 시기 사회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소수의 스페인인들로 구성된 지배계층과 인디언들로 구성된 다수의 반(semi) 노예상태의 피지배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다시 말해, 사회구조가 극단적 이분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마

찬가지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분적이고 극단적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의 분배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하였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들 인디언들의 이해는 무시되면서 이들은 교육, 인권, 후생 등 모든 면에서 제외된, 즉 사회적 소외 계층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포르투갈 식민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설탕을 생산하고 이를 유럽에 판매하는 주된 경제활동이었던 이 지역에서는 설탕농장을 세운 주인이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설탕산업에 동원된 노동력은 초기에는 인디언 노예들이었으나, 곧 흑인노예로 대체되었다. 설탕농장주인은 이들 노예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이익 모두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설탕농장주 1인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였던 소수의 백인들로 구성된 지배층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예들로 구성된 피지배층의 이분적 구조를 역시 확인할 수가 있다.

초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양분된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불 수 있으며, 이런 구조 하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소외라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초기과정을 지나 광업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스페인 식민지역은 열대농작물 재배에도 눈을 돌린다. 이런 변화과정에서 대토지소유제가 등장하면서, 초기의 엔꼬미멘다 제도를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사회구조 측면에서 거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즉 소수의 지배계층과 다수의 빈민계층이라는 이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토지소유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세력의 등장은 결국 스페인 식민지역이 여러 국가로 분리 독립하게 된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후 19세기 초, 독립이라는 정치적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따라서 사회구조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다. 경제체제에서의 변화는 20세기 초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사회적 구조 또한 다소간의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나 이분적인 형태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포르투갈 식민지역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설탕산업이 중심이었던 초기 개발과정이 17세기 중엽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17세기 말부터는 금광업이 등장하여 18세기 중반까지 절정기에 도달한 후 쇠퇴하였으며, 19세기 초 독립을 전후하여 커피산업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커피산업은 20세기 중반까지 브라질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193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경제의 중심은 커피에서 산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설탕산업에서 커피산업까지를 살펴볼 때, 대토지소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측면에서의 변화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시기 전체를 좀더 살펴보면,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설탕경제시대는 대토지소유제를 바탕으로 한 이분적 구조로 이미 앞에서 설명되었다. 금광경제시대에는 대토지 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다소 자유스러운 사회구조가 나타났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 노동자로 참여하였던 노예를 포함한 자유민 개개인이 부를 축적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분적 구조를 변화시킬만한 중산층이 등장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 흑인노예를 기반으로 한 설탕경제시대 사회구조에서 엘도라도를 찾아 온 유럽출신 이민자들과 해방된 노예들이 다수를 이룬 사회구조로 다소간 사회구성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분적 사회구조를 바꿀 정도는 되지 못하였다. 커피 경제시대로 접어 들면서, 커피산업 역시 설탕산업과 마찬가지로 대토지제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의 이분구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럽에서 임금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노예노동에서 임금노동제로 변화가 일어났고, 19세기 후반에 가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완전히 임금노동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인종구성과 노동형태 측면에서 변화는 발생하였지만, 소유구조에 변화가 없으면서 이분적 구조, 즉 소수의 부유한 지배층과 다수의 빈민 피지배층의 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20세기 초 산업화로 진입하기 이전에 스페인 식민지역 국가들과 브라질, 모두 정치, 경제, 사회구조는 이분적이고, 불평등하며, 아주 비대칭적인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산업화로 접어 들면서 수입대체산업화라는 전략을 일반적으로 채택하지만, 각국마다 매우 다른 변천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서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들을 기준으로 논의 할 때,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성장,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 이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도시빈민 실업층과 교육받은 소수의 고임금 상류층이라는 새로운 이분적 현상이 도시에서 등장하게 된다. 점점 증가하는 이들 빈민실업층은 더욱더 임금격차를 벌어지게 만들었고, 도시에서의 이분현상은 심화되어갔다. 결국 농촌에서 이분적 사회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도시에서도 새로이 이분구조가 형성되었다. 결국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전 농촌중심에서 도시중심으로 상황변화가 발생하였지만, 사회구조에서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이라도 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완전히 빈민 내지는 구걸계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1970년대에 세계 경제학계에서 새로운 논쟁을 가져왔는데, 주된 초점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사실이었다(Fishlow 1974).

이제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이분구조, 특히 사회적 불평등 측면을 논의 하였다. 이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래 <표2>에 제시되어있다. 최상위 10%소득과 최하위 40%의 소득의 비율로 나타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불평등도가 여타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아주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불평등도와 비교하여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비율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조직이 존재하는 지역과, 경제적 목적 하에서 이전의 조직을 모두 없애고 거의 역사적 실험을 하듯이 한 지역에서 발생한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사회가 형성되고 장기간의 시간흐름 속에서 힘의 균형과 파괴를 거쳐가면서 만들어진, 즉 어느 정도 그 지역사회에 알맞게 형성된 균형체계와는 달리, 이방인의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형성된 정치, 경제, 사회조직은 균형적이라기 보다는 이방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 천년에 걸쳐 형성된 기존사회의 상대적 균형상황을 고려할 때, 라틴아메리카 지역사회가 만들어온 500년이라는 역사적 기간은 이 같은 불균형적 상황을 조정하기에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2> 소득불평등도: 최상위 10%소득/ 최하위 40% 소득

저소득국가[a]		고소득국가[a]		라틴아메리카[b]	
중국	1.6	호주	1.7	아르헨티나	2.8
이집트	1.3	벨기에	1.0	볼리비아	3.6
인도	1.4	캐나다	1.4	브라질	5.6
케냐	4.7	프랑스	2.1	칠레	4.4
나이제리아	2.4	독일	1.3	코스타리카	2.5
파키스탄	1.2	이탈리아	1.4	에쿠아도르	4.9
스리랑카	1.1	일본	1.0	멕시코	4.4
탄자니아	1.7	스웨덴	1.0	파라과이	5.7
우간다	2.0	스위스	1.8	페루	2.6
베트남	1.5	영국	1.9	우루과이	2.2
짐바브웨	4.6	미국	1.6	베네주엘라	2.7

자료: [a] : World Bank 1996. [b] : IDB 1999.

2.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근 새로운 사회적 소외현상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소외현상인 구조적 실업의 경우는 단지 라틴아메리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도 1997년 IMF 이후 겪었던 구조조정으로 인해 급증한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지금은 청년실업문제로 대표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세계적 추세인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쟁심화가 가져온 것으로, 각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절약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1980년대에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겪었던 것처럼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이 기간 중에 브라질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브라질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국내경제의 침체는 경제문제해결을 더

욱 어렵게 하였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브라질 정부는 결국 개방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경제침체가 오래되자 기업들 스스로도 대외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면서 브라질은 경제정책에서 개방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며, 헤알계획(Plano Real) 이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취하게 된다(윤택동 2001, 14-22). 결국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브라질도 1990년대 이후 국제경제에 좀더 깊숙이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브라질경제의 국제경제에로 편입이 사회적 소외, 좀더 직접적으로 고용 및 실업문제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이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비교하여 고용증가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다. 아래 표3에서 보듯이, 산업활동지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용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향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브라질 산업이 과거 보호주의 내에서 안주하면서 상실하였던 경쟁력을 다시 확보를 위해 1990년대에 들어 막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Barro e Mendonça 1993).

<표3> 생산, 고용, 실업률 (1992=1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산업생산지수	100	107.51	115.68	117.80	119.84	124.50	121.97	121.11
산업고용지수*	100	96.29	93.96	92.57	84.52	81.15	76.92	72.24
생산성지수**	100	107.78	118.53	121.87	132.55	143.97	150.58	164.18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oletim do Banco Central do Brasil 2000, 7)
*: 쌍빠울루州 지수. **: 각년도 12월 평균 실업률

이 같은 생산성 증대가 가져온 실업률 증가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실업증가는 1998-99년 사이에 발생한 브라질 외환위기 때의 급속한 실업률 상승이다. 이 시기의 실업률 상승은 한국의 외환위기 때 발생한 현상과 유사하다. 브라질의 외환위기가 한국의 외환위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지만(윤택동/이종걸 2000),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되는 고용감소와 실업문제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증대, 그리고 외환위기 등이 농촌보다는 도시에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상대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산업이 주로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 즉 효율성 증대로 발생되는 고용감소와 실업증대의 효과는 당연히 도시민들에게 부담 지워진다. 아래의 자료에서 보듯이 1980-90년 사이에 빈곤층의 수치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도시지역의 빈곤율이 10%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후 1997년까지 도시에서 빈곤층의 감소는 5%에 불과하였다. 농촌에서는 이미 과거 1980년 수준으로 복귀하였으나 도시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흡수하는 힘이 낮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표4> 라틴아메리카 도시와 농촌에서의 빈곤비율 (%)

년도	빈곤		
	계	도시	농촌
1980	35	25	54
1990	41	35	58
1994	38	32	56
1997	36	30	54

자료: CEPAL 1998.

결과적으로 세계화라는 새로운 국제경제의 추세가 가져오는 개도국들에 대한 문제는 이전의 전통적인 문제점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의 해결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Ⅴ. 결론 :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의 제약조건으로서 불평등문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심각한 불평등은 이 지역사회의 심각한 이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하층민들의 사회적 소외가 발생한다. 더욱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불평등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소외현상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심각한 사회적 소외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에 자리잡은 정치, 경제, 사회구조에 뿌리가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개발된 이 지역은 원래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창출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적합한 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자리잡은 구조는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고 있다.

그 동안 구조적 견고성을 보여온 라틴아메리카지역 사회적 소외현상에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이 지역의 사회적 소외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더욱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외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전부터 존재해온 전통적 형태의 사회적 소외문

제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외현상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소외는, 특히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첫째, 다수의 많은 하층민들은 소득수준이 아주 낮음으로 인해 구매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수요규모가 작아짐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하층민들은 값싼 국산품을 주로 소비하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국산품보다는 고품질의 수입품을 선호하고 이로 인해 국내수요의 누출도 발생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소비시장의 크기를 작게 할뿐만 아니라 수요의 왜곡현상까지도 발생하게 만들어 국내산업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로, 하층민들의 낮은 소득수준은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영양공급으로 연결되면서 생산부문에서의 질적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불평등과 이분적 사회구조에서 나오는 사회적 소외문제는 결국 경제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하층민들의 소득 수준개선을 통한 불평등의 개선은 수요확대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면서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사회적 소외현상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 측면에서 형평성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대두하는 문제는 어떻게 사회적 소외, 특히 부의 분배와 불평등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부를 단순히 모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증가되는 부분을 분배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분배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참고문헌

윤택동(2001),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택동/이종걸(2000),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재검토와 브라질 외환위기와의 비교」, 국제지역연구 vol.4, pp.99-124.

ARNDT, H.W(1987),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oul : Bi Bong Press.

Banco Central do Brasil(2000), *Boletim do Banco Central do Brasil*, julho.

Barro, Ricardo P.; Mendonça, Rosane S.P.(1993), "Geração e Reprodução da Desigualdade de Renda no Brasil, ANPEC", *Encontro Nacional de Economia, Anais do XXI*, vol.2, Belo Horizonte.

CEPAL(1998), *Panorama Social*, Santiago de Chile.

DEMO, Pedro(1996), *Exclusão Social: novas e velhas formas*, Brasília : UnB.

IDB(1999), *IPES 1998/1999, America Latina frente a la Desigualdad*, New York.

FISHLOW, Albert(1964), "Algumas Reflexos sobre a Política Econômica Brasileira após", *Estudos CEBRAP* 7(1974)

Furtado, Celso(1983), *Formação Econômica da América Latina*, 윤성옥역, 한길사.

HOFMAN, André A(2000),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in twentieth century*, Northampton, MA : Edward Elgar.

PREBISCH, Raúl(1949), *El Desarroll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sus Principales Problemas*, Santiago : CEPAL

REIS, Carlos Nelson dos(1997), A Relação Estado Sociedade: o desmonte das instituições sociais e a exclusão social, *Análi*se, Porto Alegre, Vol.8, No.2.

WANDERLEY, Mariangela Belfiore(1999), "Refletindo sobre a Noção de Exclusão", *Revista Serviço Social e Sociedade*, Ano XVI, n.º 55, São Paulo Cortez.

WORLD BANK(1996), *World Development Report - Selected World Development Indicator*, New York.

논문투고일자 : 2005년 4월 29일